

#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주도” 군민이 행복한 순창 만든다

### 군, 주민복지 예산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731억원 편성

순창군이 올해 주민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5.5%가 증가한 73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황숙주 군수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432억원으로 가장 많은 59%를 차지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98억원, 어린이 보육 및 청소년 육성 99억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 57억원, 여성능력 개발 및 다문화가족 지원 28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순창' 조성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잡종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9억원을 편성해 올해 공사에 착수한다. 여성단체지원,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 가정 지원 등에 25억원, 순창군 노인인구 85%에 해당하는 8,000여명에게 283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980여명을 노인일자리아업에 참여시키는 등 노인복지분야에도 34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 총 30여개 사업에 56억원을 편성했으며, 아동수당 및 급

식·생활비 지원에도 1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관련 연금과 수당 지원에 18억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21억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20억원을 편성해 저소득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도 올해 초 시설설계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올해 '복합 청소년 문화의 집'과 '복합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개관 등 청소년 육성분야에도 총 19개 사업에 14억6,000만원을 편성해 청소년지원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순창을 문화의 집 2층에 '아이랜드 놀이체험실'도 개장하면서 육아 보육 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 전체 예산의 16.1%인 731억원을 주민복지예산으로 편성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다문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놓인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민들도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 지 잘 살피고 도움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실군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군은 11일부터 세대당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무이자 임대보증금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 희망자 총 37가구다. /임실=진총영 기자

지원에 이어, 올해도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 8일 사업공고를 냈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으로 임신택도주공아파트가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주택토지과(640-2284)나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관리 및 읍·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실=진총영 기자

## 남원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작년대비 2억6,400만원이 늘어난 10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50대 이상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49명을 모집한다.

이번 일자리사업은 퇴직한 5060 신중년 세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자리 형태로 제공,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들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모집분야는 지역서비스 등 3개 분야 21개 사업 총 43명이며 해당분야에 관련된 경력 3~5년 이상이거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29일까지 남원시 일자리센터(남원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심민 임실군수, 조직개편·정기인사 완료·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가져

임실군이 2021년 신년 화두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심민 군수는 11일 새해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마무리한 후 가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를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꼼꼼히 챙겨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군은 지난 6일자 팀원급 인사를 마지막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새해 정기인사를 단행, 새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발 빠르게 조직을 정비했다.

특히 섬진강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옥정호 종합생태관광지 개발을 주도할 옥정호힐링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통해 천만관광을 주도할 옥정호 시대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심 군수는 "조직개편과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오로지 군민들만 바라보고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온 힘을 다해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향해 달려나갈 것"이라며 "민선 7기 후반기 성과 창출에 한층 더 집중해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올해 옥정호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섬진강 예코뮤지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반기에 국내 최장거리의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



임실군이 2021년 신년 화두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와 4개의 썰라인, 스카이워크 등이 설치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 군수는 "옥정호는 전라북도의 보물섬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사업"이라고 재차 언급한 뒤 "옥정호 인근에 대형 주차장 조성 등 관광객 교통편의 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흑한기 대설과 한파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 군수는 "많은 눈과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한파로 인해 사전 예방과 대응조치에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주도 재설 취약 및 결빙지역 점검과 상수도 동파,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피해상황 및 대응에 철저히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차 대유행이 안정되고 있으나, 요양병

원과 교회, 식당 등 중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차질 없는 군정을 위한 군의회와의 협력관계도 강조했다. 심 군수는 "국·과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의회를 찾아가, 해당사업에 대해 의원분들께 명확히 설명하고, 업무보고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잘해도 군민들이 모르면 안 되는 만큼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군민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은 12일부터 민선 7기 후반기 역점시책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옥정호힐링과와 관광치즈과를 시작으로 관광개발 및 경제활성화, 농업·농촌 등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 갖는다. /임실=진총영 기자

## “철통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세 최대한 잠재워야”

### 이환주 남원시장, 신년 첫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서 행정대응 강화 주문

이환주 남원시장은 11일 신년 첫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에서 코로나 지역 확산세에 임종하게 대처하라며, 행정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관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어 상당한 위기감이 돌고 있는 만큼, 단계별 방역준수는 물론 전과경로차단 등 철통방역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컨트롤타워 역할의 공직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하면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어려울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잘 잡고, 기강도 잘 잡아야 된다며, 관리자들이 솔선수범으로 시정이 위기 속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부서장들은 최근 남원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온택트 행정 도입에 따른 부서별 행정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온택트 행정도입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행정변화로 모바일 행정추진 전환에 다 같이 빠르게 대응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려면 시 전체적인 현안진단 점검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플랫폼 스튜디오 마련 등 다양한 방식의 업무추진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용자 입장에서 행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에 이 시장은 "남원시 1년 행정농사는 신년 초에 어떻게 시작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올해 추진할 다양한 사업을 연초에 제대로 설계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